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mory of the Past Experience and Ego Integrity in the Elderly

Su Hyeon Choi[†]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 Korea

Abstract

Considering that ego integrity can be achieved by accepting both successes and failures from the past, the memories of the past experience would have an important impact on ego integr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plore the link between the memory of the past experiences and ego integrity. The participant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past experiences and asked about their ego integrity,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lthough they all were satisfied with most of their past experiences and had positive memories, 80 percent of them were still unhappy and frustrated with their academic careers. In addition, their relationship with parents, marital satisfaction, and post-retirement life satisfaction have a static correlation with their ego integrity.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elderly with higher levels of ego integrity ha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Key words: past experience, ego integrity, relationships with parents, marriage satisfaction, post-retirement life

1. 서론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우리 사회의 노인 인구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건강 악화,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로 인해 노인들은 사회적 무가치함과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며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2009년부터 6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인은 10만 명당 54.8명

으로 OECD 평균의 3.2배에 달한다. 중앙자살예방센터에 따르면 2015년 국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망자 중 65세 이상 연령의 비율은 전체 중 28.4%로, 미국(10만 명당 16.6명)의 3.5배, 일본(10만 명당 25.8명)의 2.3배에 이른다. 초고령 노인일수록 그 수는 더욱 심각하여, 10만명당 36.9명이었던 60대 자살률은 70대에서 10만 명당 62.5명으로 수직 상승했다가 80대에선 83.7명까지 높아졌다(Newsis, 2017).

심한 고립감이나 무가치함으로 고통 받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노인들은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라고 지각하며 '내가 죽는 것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을

[†] Corresponding author: Su Hyeon Choi, Tel. 82-43-249-1705, e-mail. ido-ch@hanmail.net

위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는 노인이 자신을 짐스러운 존재라고 왜곡되게 인식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인식된 짐스러움(perceived burdensomeness)의 수준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질 뿐만 아니고 인식된 짐스러움이나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Orden, *et. al.*, 2006). Chu & Lee(2012)의 연구에서는 인식된 짐스러움 자체가 자살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인식된 짐스러움이 절망감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자살생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망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로(Beck, *et. al.*, 1974), 자신이 살아온 삶이 후회스럽지만 이를 되돌릴만한 더 이상의 시간도, 기회도 없다고 느낌으로써 생겨나는데(Erikson, 1950), 절망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과 등의 다양한 모습의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심리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졌으며(Brown, *et. al.*, 2000; Lynch, *et. al.*, 2004), 우울증보다 자살관련 행동에 대한 더 강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보고되었다(Cole, 1989).

Erikson(1950)은 노년기에 이룩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자아통합(ego-integrity)을 언급하였는데, 자아통합은 삶을 깊게 성찰함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이룩한 성공과 실패를 모두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성공이나 실패가 나름의 의미가 있었음을 느낄 때 획득된다. 반면 자아통합을 이루지 못한 노인들은 절망(despair)에 이르게 되는데, 절망이란 자신의 일생을 후회하며 자신의 삶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여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으로 절망을 경험하면서 공포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맞게 된다.

그렇다면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과거 삶의 모든 조건이 좋았던 사람일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아통합과 관련 변인과의 연구들은 현재 삶의 조건과 자아통합의 수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제 과거 삶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자아통합은 과거 삶에 대한 수용이 중요한 만큼,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자아통합을 획득했고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현재의 자아통합 획득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거 살아온 삶의 경험과 현재 노인들이 획득한 자아통합 수준과의 관계를 인터뷰와 설문을 통해 알아보고, 현재의 자아통합의 수준이 심리적 기능에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노년기 정신건강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로 하여금 의료비 증가, 연금 고갈, 노동인력의 감소,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의 증가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노인 자신으로 하여금 고독, 역할 상실, 빈곤,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특히 치매, 우울증, 자살 등은 노년기 정신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Park, *et. al.*, 2017), 이 중 우울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서로 지각, 판단, 기억, 사고, 태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까지 광범위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슬픔, 공허함, 두통, 식욕감퇴, 신경질 같은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행동을 수반한다(Beck, 1976). 우울 증상의 경험은 젊은 연령층보다 노년층에서 높았으며, 80대 이상 노인은 전반적으로 우울 증상 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남자의 우울 경험은 80대 이상에서 가장 높고, 여자의 우울 경험은 70대가 2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0대와 60대가 높게 나타나는 등 노인들의 우울증상 문제는 계속 심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은 자살로 이어지거나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기능을 저하시키는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 있지만, 노인들은 우울한 기분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라는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따른 경제적 지출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진단이나 치료에 소극적이다(Lee, *et. al.*, 2017). 그러나 우울은 많은

연구들에서 일관성 있게 노년기 자살생각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우울한 상태에 있던 노인이 배우자나 자녀의 죽음, 재정적 위기, 치명적인 질환이나 기능 손상의 발생, 가족 및 친구와의 단절이나 심각한 갈등 등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자살생각을 상승시키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Bonnewyn, *et. al.*, 2009).

2. 자아통합의 적응적 기능

자아통합은 과거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과거의 일들을 모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자아통합을 이루면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느끼며 깊은 안녕상태에 머무르게 된다(Choi, 2014). 따라서 자아통합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로운 견해를 갖게 되고, 나아가 다가올 미래의 죽음마저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Kim, 1988).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자아통합을 이룬 노인들의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자아통합을 예측하는 과거 삶의 특징을 추적해보거나 또는 자아통합이 높은 노인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자아통합의 심리사회적 측면의 다양한 적응적 기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James & Zarrett(2005)는 자아통합과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연구 결과 성인초기 자아정체감이 중년초기 생성감과 중년후기의 자아통합을 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고, 우울은 자아통합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며, 중년 초기 결혼 만족도는 이후 자아통합과 강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Torges, *et. al.*(2008) 또한 중년기 생성감이 노년기 자아통합을 예측하고, 자아통합은 삶의 만족이나 심리적 안녕감과 강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Hiel & Vansteenkiste(2009)는 자아통합의 수준은 자기 수용 정도나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사회적 기여 등의 내적목표 달성과 정적 상관이 높지만 우울, 절망과는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러나 외적인 목표의 달성, 즉,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것이나 신체적인 매력과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자아통합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잘 기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자아통합감이 높은 노인들은 정서상태가 안정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가족관계와 이웃관계가 좋으며,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1999). Chang & Oh(2011)의 연구에서도 자아통합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가족관계가 좋았으며, 경제와 건강상태가 좋았고,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Yeo & Kim(2006)의 연구에서도 자아통합은 부동거와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Ju(2003)의 연구에서는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결혼만족도가 높았으며,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 사회활동이 많고 사회적 지지도가 높으며, 무력감은 적고 자아존중감은 높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im, 2006). 반면에 상실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아통합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Kim, *et. al.*(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적 상실이나 건강 상실 그리고 관계의 상실을 경험한 노인일수록 자아통합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Kim, *et. al.*(2009)의 연구에서는 자아통합의 수준이 낮은 노인일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가 높았음이 확인되었다.

자아통합에 관한 초기 국내 연구들은 주로 자아통합과 현재 삶의 조건들과의 관계를 확인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현재 삶의 조건이 좋은 노인일수록 자아통합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자아통합은 과거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 획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온 삶의 조건이 좋고 편안했던 노인일수록 과거 삶의 수용이 쉽고 빠를 수는 있지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온 노인들도 깊은 성찰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면 자아통합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삶의 경험이 실제 좋은 조건에 있었어야만 자아통합 수준이 높은지 알아보려고 과거 삶의 경험에 대한 기억과 자아통합 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지역사회 노인복지관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가를 즐기고 있는 노인들과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참여 의사를 밝힌 노인들을 대상으로 과거 경험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을 실시하였다.

〈Table 1〉을 보면, 전체 참가자는 교육프로그램 참가 노인 40명(66.7%), 자원봉사 노인 10명(16.7%) 그리고 무료급식 노인 10명(16.7%)으로 남성 19명(31.7%), 여성 41명(68.3%)이 참가하였다. 참가자 나이는 60세부터 84세까지로(평균 연령 73세), 60대 15명(25%), 70대 36명(60%), 80대 9명(15%)이었고, 학력은 무학 3명(5%), 초졸 17명(28.3%), 중졸 7명(11.7%), 고졸 17명(28.3%), 대졸이상 16명(26.6%)이었다. 건강은 매우 건강하지 않음 1명(1.7%), 별로 건강

하지 않음 9명(15%), 비교적 건강함 42명(70%), 매우 건강함 8명(13.3%)이었고, 경제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움 4명(6.7%), 조금 어려움 8명(13.3%), 적당한 생활이 가능함 38명(63.3%), 여유 있음 10명(16.7%)이었다. 주거상태는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음이 36명(60%),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이 4명(6.7%), 자녀와 함께 살고 있음 7명(11.7%), 혼자 살고 있음 11명(18.3%), 기타 2명(3.3%)이었다.

2. 조사도구

1) 과거경험 인터뷰

과거 경험에 관한 인터뷰의 내용은 생애 단계별 발달에 기초하여 두 명의 발달심리학 박사가 논의하여 설문형식으로 제작하였다. 인터뷰는 아동기의 부모와의 관계와 형제자매와의 관계,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의 학업과 직업에 관한 성취, 결혼 후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 중년기의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성취와 보람, 은퇴 후의 생활 만족도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Table 2〉). 먼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은 ‘나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매우 긍정, 긍정, 부정, 매우 부정의 4점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전체 문항의 평균 점수는 3.49로 확인되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은 ‘어릴 때 특히 나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가 있었다.’ 등 과거에 대한 질문 1문항과 현재 형제들에 대한 느낌과 연락정도를 알아보는 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3.14점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학업에 대한 만족여부를 알아보는 문항은 ‘나는 원하는 만큼 공부를 했다.’를 포함한 2문항으로 평균 1.59점으로 확인되었다. 학업을 마친 후에 생활에 대한 기억을 알아보는 문항은 ‘나는 학업 후 내가 한 일에 대해 만족한다.’ 등 2문항 평균 2.79점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문항은 ‘나의 결혼생활은 행복한 편이었다.’ 등 2문항으로 평균 2.84로 확인되었다. 자녀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문항은 자녀에 대한 사랑을 알아보는 2문항과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는지를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Variable	Categories	빈도	%
Gender	Male	19	31.7
	Female	41	68.3
Education	Uneducated	3	5.0
	Elementary School	17	28.3
	Middle School	7	11.7
	High School	17	28.3
	University	16	26.6
Health	Very poor health	1	1.7
	Poor health	9	15.0
	Good health	42	70.0
	Very good health	8	13.3
Financial condition	Very difficult	4	6.7
	A little difficult	8	13.3
	Good	38	63.3
	Very good	10	16.7
Living	With spouse	36	60.0
	With spouse and children	4	6.7
	With children	7	11.7
	alone	11	18.3
	Others	2	3.3

Table 2. Questions about past experiences

Relation with parents			Relations with siblings		
Question	M	SD	Question	M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was much loved by my father. • I was much loved by my mother. • I still blame my father. • I still blame my mother. 	3.49	0.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had a sibling who was at odds with me • I have a sibling I don't want to see. • I often keep in touch with my brothers and sisters. 	3.14	0.99
Education			Daily life after graduation		
Question	M	SD	Question	M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was educated as much as I wanted. • If I go back to the past, I want to get more education. 	1.59	0.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was satisfied with daily life after graduation. • If I were to go back then, I would do the same thing. 	2.79	0.97
Marriage			Relationship with children		
Question	M	SD	Question	M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was satisfied with my marriage. • Even if I marry again, I will marry my current spouse. 	2.84	0.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loved my children enough. • My children feel loved enough. • I did my best to my children. • My children know I did my best for them. 	3.01	0.74
Employment/Housework			Housework		
Question	M	SD	Question	M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did my best at work. • My boss and colleagues acknowledged my ability. 	3.80	0.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don't regret my devotion to my family. • Housework for the family is as important as working at work and rewarding. 	3.17	0.75
After retirement					
Question				M	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y economy is in good condition now. • My health is in good condition. • After retirement, I am enjoying new gatherings and leisure activities. 				3.23	0.63

알아보는 2문항으로, 평균 3.01점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직장생활에 대한 질문으로는 ‘나는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등 2문항으로 평균 3.80점으로 나타났으며, 가사와 양육에만 전담한 노인들을 위한 문항으로는 ‘내가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것은 바깥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었다.’ 등 2문항으로 평균 3.17점으로 확인되었다. 끝으로 현재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만족을 알아본 문항으로는 ‘은퇴 후 새로운 모임과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등 3문항으로 평균 3.23점으로 확인되었다.

2) 자아통합

자아통합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Choi & Ghim (201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들 척도는 과거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였는지 알아보는 6개의 문항과 과거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지 알아보는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한 답은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아니다’는 1점으로 채점하는 5점 척도로 제작되었다. 이 중 역문항 4개는 역채점됨으로써, 점수가 높으면 자아통합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문항의 예로는 ‘지나온 삶이 후회스럽다.’ ‘인생에는 각자가 겪어야 할 운명이 있다.’ ‘지금처럼 살아온 것은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72였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척도는 Diener, *et. al.*(1985)이 제작하고 Park & Suh(2005)가 번역한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했다. 척도는 총 5문항이고, ‘매우 그렇다’가 7점, ‘전혀 아니다’가 1점으로 채점되는 7점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점 척도로 바꾸었는데,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전혀 아니다'를 1점으로 채점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만약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 해도,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9 이었다.

4)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Sheikh & Yesavage (1986)가 개발한 GDS(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을 Kee(1996)가 표준화한 한국판 노인우울 척도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척도는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질문에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울 정도를 보다 확실하게 측정하려고 5점 척도로 바꾸어 질문했다. 즉, '매우 그렇다' 5점, '전혀 아니다' 1점으로 채점하였다. 역문항은 10개로, 점수가 높으면 우울 정도가 높다는 것을 뜻한다. 문항의 예는 '가끔 낙담하고 우울하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어르신의 인생이 매우 가치가 없다고 느끼십니까?' '인생이 매우 흥미롭다고 느끼십니까?' 등이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복지관의 모집공고를 통해 참가를 원하는 지원자가 찾아오면 인터뷰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인터뷰의 내용이 자아통합 등의 질문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반은 설문지를 먼저 작성한 후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반은 인터뷰를 먼저 한 후 설문에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을 포함한 인터뷰 전체 시간에는 일인당 약 40~5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9.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한 빈도 분석과 인터뷰 내용과 자아통합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외 각 발달단계에서의 과거 경험이 자아통합을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 알아보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 과

1. 과거 경험과 자아통합

1) 과거 삶의 경험에 대한 기억

노인들이 과거 삶의 경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각 발달단계의 주요 과업과 관련된 질문을 4~6개 정도 인터뷰 하였다. 이 중 기초 질문(부모님의 생존 여부, 형제자매의 수와 서열, 결혼 상태 등)을 제외한 2~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긍정(매우 긍정, 긍정)과 부정(매우 부정, 매우)으로 나누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3〉을 보면, 어린 시절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답한 노인은 52명,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답한 노인은 8명으로 86%의 노인이 어릴 적 부모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아직 부모님과 풀지 못한 원망의

Table 3. Memories of the past experience

		N	%
was loved by my parents	positive	52	86.7
	negative	8	13.3
blame my parents	positive	57	95.0
	negative	3	5.0
was on good terms with siblings	positive	45	75.0
	negative	15	25.0
keep on good terms with siblings	positive	48	80.0
	negative	12	20.0
was satisfied with my academic background	positive	12	20.0
	negative	48	80.0
was satisfied with daily life after graduation	positive	39	65.0
	negative	21	35.0
was satisfied with my marriage	positive	44	73.3
	negative	16	26.7
loved my children	positive	42	70.0
	negative	18	30.0
did my best to my children	positive	55	91.7
	negative	5	8.3
did my best at work	positive	50	98.0
	negative	1	2.0
was satisfied with my family work	positive	8	88.9
	negative	1	11.1
am satisfied with my life after retirement	positive	53	88.3
	negative	7	11.7

마음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고 답한 노인은 57명이었고 그렇다고 답한 노인이 3명으로, 5%의 노인이 부모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아직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 형제관계에서는 45명이 좋았다고 답했으나 15명이 좋지 않았다고 답해 25%의 노인들이 어린 적 형제자매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현재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48명이 좋고 자주 연락을 한다고 답했으나 12명, 20%의 노인들은 현재 형제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청소년기에 공부를 하고 싶은 만큼 했는지 알아본 질문에서는 12명만이 그렇다고 답하고 48명이 그렇지 못했다고 답해, 80%의 노인들이 어린 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학업을 끝낸 후에 했던 일들(집안일, 직장생활, 결혼 등)에 대해 만족을 느꼈는지 알아본 결과 그렇다는 대답이 39명이었고, 그렇지 않았다는 대답이 21명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에서는 45명의 노인들이 만족한다고 답했으나 15명의 노인들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해 1/4의 노인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자랄 때 사랑을 주었고, 자녀도 이것을 느낄 것이라고 답한 노인들은 42명이었으나 그렇지 못했다고 답한 노인들은 18명으로, 30%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7%의 노인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고, 자녀도 이것을 느낄 것이라고 답한 반면, 5명(8.3%)만

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사는 동안 직장생활을 했던 노인은 모두 51명으로 전체 85%의 노인들이 직장생활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단 1명을 제외한 50명(98%)이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반면 가사와 육아에만 전념했던 노인들은 9명으로 전체의 15%였는데, 이 중 8명(88.9%)의 노인들이 가사와 양육에 전념했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중 5명은 다시 그때로 돌아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지 알아본 결과 53명은 그렇다고 답했고, 7명은 그렇지 못하다고 답해, 전체 노인들의 88.3%는 은퇴 후 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과거 경험과 자아통합과의 관계

과거 삶의 경험이 자아통합과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부모관계, 형제관계, 학업만족, 학업 후 만족, 결혼만족, 자녀관계, 직장/가사만족, 은퇴 후 만족과 자아통합에 대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그 결과, 어린 적 부모와의 관계가 자아통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r=.359, p<.01$), 결혼생활의 만족과 자아통합($r=.399, p<.01$) 그리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한 만족과 자아통합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r=.387, p<.01$). 그러나 형제자매와의 관계, 학업에 대한 만족, 학업을 마친 후 했던 일에 대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past experience and ego integrity

	Relation with parents	Relations with siblings	Education	Daily life after graduation	Marriage	Relationship with children	Employment /Housework	After retirement
Relations with siblings	.239							
Education	.086	-.119						
Daily life after graduation	.102	.244	.256*					
Marriage	.264*	.170	.199	.500**				
Relationship with children	.285*	.153	-.124	.057	.403**			
Employment /Housework	-.125	.033	-.098	.549**	.283*	-.102		
After retirement	.313*	.219	.045	.340**	.612**	.267*	.214	
Ego-integrity	.359**	.175	.138	.238	.399**	.050	.180	.387**

한 만족,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과 직장생활이나 가사에서의 만족은 자아통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 외에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는 결혼생활에서의 만족($r=.264, p<.05$),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r=.285, p<.05$), 은퇴 후 생활에서의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313, p<.05$), 청소년기의 학업에 대한 만족은 학업을 끝낸 후 했던 일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56, p<.05$). 학업을 끝마친 후의 생활에 대한 만족은 이후 결혼생활의 만족($r=.500, p<.01$), 직장이나 가사 일에 대한 만족($r=.549, p<.01$), 은퇴 후 생활에서의 만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340, p<.01$), 결혼생활의 만족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감($r=.403, p<.01$), 직장이나 가사 일에 대한 만족감($r=.283, p<.05$), 은퇴 이후의 생활에서의 만족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612, p<.01$). 또한 자녀와의 관계에서의 만족감은 은퇴 후 생활에서의 만족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267, p<.05$).

2. 자아통합과 정신건강

노인들의 자아통합 수준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통합 점수와 우울점수 그리고 삶의 만족도 점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그 결과 자아통합은 우울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r=-.624, p<.001$), 삶의 만족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702, p<.001$). 즉,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은 노인들은 우울을 적게 느끼지만, 삶의 만족감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우울은 삶의 만족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781, p<.001$).

Table 5. Correlations among the past experience mental health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Ego integrity	-.624**	.702**
Life satisfaction	-.781**	

V. 결론 및 논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아통합은 건강이나 교육, 경제 상태 등 현재 삶의 조건이 좋은 경우에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1988; Yeo & Kim, 2006). 그러나 자아통합은 과거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과거의 잘잘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를 수 있는 것임으로, 과거 경험과 현재 자아통합 수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과 현재 노인들의 자아통합 수준의 관계를 설문 형식의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노인들은 대부분의 과거 경험에 긍정적으로 기억하거나 긍정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는 약 13%의 노인들이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아직도 부모를 원망한다는 노인은 5%로 줄어, 현재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부모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제와의 관계는 과거에 긍정적이었다는 답변보다 현재에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5% 정도 많아져, 나이가 들면서 형제 관계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에 대한 만족은 다른 경험과는 달리 만족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답변(80%)이 긍정적인 답변(2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노인들이 청소년기를 보냈던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적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관계로, 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짐작할 수 있다. 실제 노인들은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던 이유로 집안이 어려워져서, 전쟁으로 인해, 다른 형제가 공부를 해야 했으므로 등을 들었다. 학업을 중단하고 노인들은 집안일을 돕거나 일자리를 구하거나 간혹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학업 후에 한 일에 대한 만족감 역시 다른 경험들보다 낮게 나타나, 1/3 이상은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후 절반의 노인들은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했고, 나머지 반은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과 결혼했는데, 3/4의 노인들은 결혼생활이 행복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30%의 노인들이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기억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노인들이(91.7%)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 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전체 19명 중 9명이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지만, 단 한명을 제외한 18명은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이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우선시하던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살가운 관계를 맺지는 못했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희생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노인들 중에서 양육과 가사 등 결혼 후에 집안일에만 전념했다는 노인은 15%뿐이었고, 나머지 85%는 직장생활을 계속했거나 경험을 했는데, 두 집단 모두 자신의 일에서 최선을 다했고 만족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직장에서 일을 했다고 답한 51명의 노인들 중, 단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노인들은 자신들이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했고 직장의 상사나 동료들로부터도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은퇴 후 생활에 대해서는 88.3%의 노인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경제적으로 적당히 여유가 있고(75%), 아직 건강하며(85%), 은퇴 이후에 새로운 모임이나 여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88.3%) 있다고 답했다. 이는 인터뷰 장소가 여가 활동을 즐기는 복지관이라는 특수성과 참여 노인들의 편중(전체 60명 중에서 10명(16.7%)이 무료급식 노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실제로 많은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노년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노인들의 이러한 과거 경험이 실제로 노년기의 자아통합과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노인일수록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생애 첫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면 노년기에 자아통합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 생활에서의 만족감도 노년기 자아통합과 유의미한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생활에서의 배우자와의 관계는 대개 성인기부터 시작되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간관계로, 이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거나 긍정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면 노년기에 자아통합 역시 이루기 어려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끝으로 과거 경험은 아니지만 현재의 은퇴 후의 삶 또한 자아통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경제 상태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또 새로운 모임활동과 여가활동에 참여하며 은퇴 후 삶을 즐길수록 노인들의 자아통합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과거의 어떤 경험들이 노년기의 자아통합을 예측하는지 알아보려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변인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과거 경험에 대한 특정 기억들로 자아통합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생애 중요한 두 가지 인간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기억을 가졌을 것이며, 또 현재의 은퇴 후의 삶에서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자아통합을 이룬 노인일수록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지 알아보려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은 적게 느끼며,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 연구 결과들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Kim, 1988; Kim, 2006; Kim, *et. al.*, 2007; Yeo & Kim, 2006).

본 연구는 자아통합과 과거 경험과의 관계를 알아본 매우 찾아보기 힘든 연구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이루어진 노인들의 과거 경험 회상과 자아통합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다루기는 했으나, 기억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회상 후 자아통합의 수준 변화를 본 것이 대부분이었다(Bae, 2003; Kim, 1988; Kim, 2002; Nam, *et. al.*, 2011). 그러나 본 연구는 설문 형식의 면대면 인터뷰 방식을 취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수의 노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분석해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노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과거 경험 중에서도 특히 어떤 기억이 노인들의 자아통합 수준과 관계가 깊은지 알아 보았는데, 이를 통해 부모와의 관계나 결혼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노인들의 자아통합과 매우 의미 있는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목적으로 비교적 많은 수의 노인들에 대한 설문 형식의 간이 인터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깊이 있는 인터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노인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 있는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 본 연구에는 다양한 배경의 노인들을 포함하고자 비교적 저소득층이라 볼 수 있는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을 10명(17%) 포함하였다. 그러나 이분들을 제외한 50명(83%)은 복지관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비교적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노인들이 고루 포함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또 하나의 한계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복지관에 다니고 있는 노인들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 회관에 다니고 있는 노인들, 그리고 지역 또한 도시와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고루 포함하여 인터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노인 한분 한분의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듣고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심층 인터뷰가 이루어지면 내용 분석이나 해석이 풍부한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2031575).

The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3S1A5B5A02031575).

References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 Univ. Press.
- Beck, A. T., A. Weissman, D. Lester, and L. Trexler.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onnewyn, A., A. Shah, and K. Demyttenaere. 2009. Suicidality and Suicide in Older People. *Reviews in Clinical Gerontology*. 19: 271-294.
- Brown, G. K., A. T. Beck, R. A. Steer, and J. R. Grisham. 2000. Risk Factors for Suicide in Psychiatric Out-patient: A 20-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9: 371-377.
- Chang, Hae Kyung and Won Oak Oh. 2011. Factors Influencing Ego-Integrity in Community Dwelling Elder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8(4): 529-537.
- Choi, Hyeon Ok. 2014. A Study of Ego-integrity Scales: Comparisons of Related Factors.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4(3): 539-553.
- Choi, Seong Sook. 2017. The Effects of Senior Volunteering on Ego Integrity: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Generativity and the Moderating Effect Social Support. Ph. D. Dissertation. Sungkyul University.
- Choi, Su Hyeon and Hei Rhee Ghim.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go-Integrity Scale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6(2): 199-214.
- Chu, Kyoung Jin and Seung Yeon Lee. 2012.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Burdensomeness,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nd El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1-53.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3): 248-255.
- Cook, E. A. 1991. The Effects of Reminiscence on Psychological Measures of Ego Integrity in Elderly Nursing Home Resident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5): 292-298.
- Diener, E., R. A. Emmons, R. J. Larsen, and S. Griffin. 1985.

-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Hiel, A. V. and M. Vansteenkiste. 2009. Ambitions Fulfilled? The Effect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 Attainment on Older Adults' Ego-Integrity and Death Attitud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8(1): 27-51.
- James, J. B. and N. Zarrett. 2005. Ego Integrity in the Lives of Older Women: A Follow-Up of Mothers From the Sears, Maccoby, and Levin(1951) Patterns of Child Rearing Study.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2(4): 155-167.
- Ju, Hee Jeong. 2004. Influencing Factors of Ego Integrity in the Elderly.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 Kee, Baik Seok.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2): 298-307.
- Kim, Hee Kyung. 2006. Factors Influencing Ego Integrity of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1): 24-35.
- Kim, Hu Kyung, Soon Chul Lee, and Ju Seok O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ief of Loss and the Sense of Ego-Integrity of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13(2): 17-32.
- Kim, Ji Hyun, Yeon Wook Kang, Kyung Ryu, and Ju Il Rie. 2009. Predictors of Ego-Integrity in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among the Elders. *Th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3(4): 115-130.
- Kim, Ju Sung. 1999. A Study on Ego Integrity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Journal of Research*. 26(1): 259-277.
- Kim, Jung Soon. 1988. A Study of Social Activities and Ego Integrity of the Aged. Ph. 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Lee, Sung Jin, Gi Hyeok Yun, and Jin Yeol Lee. 2017. Factors Influencing Period from Retirement to Occurrence of Depression of Elderli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5): 905-926.
- Lynch, T. R., J. S. Cheavens, J. Q. Morse, and M. Z. Rosenthal. 2004. A Model Predicting Suicidal Ideation and Hopelessness in Depressed Older Adults: The Impact of Emotion Inhibition and Affect Intensity. *Aging & Mental health*. 8(6): 486-497.
-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Population Housing Survey, Total Survey Population(2010), The aged(10%).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parentId=O.
- Newsis. 2017.09.09. OECD, Suicide of the Old Man, World's Most... the Aging Society, Sad Self-image. <http://news.joins.com/article/21921123>
- Park, Jung Hyun and Eun Kook Suh. 2005. Lay Beliefs of Selfhood and Personal Theories of Happines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4): 19-31.
- Park, Yeong Ran, Deok Soon Son, and Kyung Soon Park. 2017. Current Status of and Tasks for Improving Mental Health Policy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Legislation and Policies*. 9(2): 275-298.
- Sheikh, J. I. and J. A. Yesavage.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 Brink, T. L., (ed).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The Harworth Press. 165-173.
- Torges, C. M., A. J. Stewart, and L. E. Duncan. 2008. Achieving Ego Integrity: Personality Development in Late Midlif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2(4): 1004-1019.
- Van Orden, K. A., M. E. Lynam, D. Hollar, and T. E. Joiner. 2006. Perceived Burdensomeness as an Indicator of Suicidal Symptoms. *Cognitive Therapy & Research*. 30(4): 457-467.
- Wagner, K. D., R. P. Lorion, and T. E. Shipley. 1983. Insomnia and Psychosocial Crisis: Two Studies of Erikson's Developmental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4): 595-603.
- Yeo, In Suk and Choon Kyung Kim. 2006. Effects of Reminiscence Function, Depression, Death-Anxiety and Social Activity on the Ego-Integrity in the Elderly.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2(2): 79-104.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기백석. 1996. 한국판 노인 우울 척도 단축형의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35(2): 298-307
- 김정순. 1988. 노인의 사회적 활동과 자아통합감에 관한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주성. 1999.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연구 논문집. 26(1): 259-277.
- 김지현, 강연옥, 유경, 이주일. 2009. 성공적 노년기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3(4). 115-130.
- 김후경, 이순철, 오주석. 2007. 고령자의 상실감과 자아통합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3(2): 17-32.
- 김희경. 2006.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영향요인. 노인간호학회지. 8(1): 24-35.
- 뉴스스. 2017.09.09.일자. OECD 노인자살 세계 최고... 고령화 사회 '슬픈 자화상'. <http://news.joins.com/article/21921123>
- 박영란, 손덕순, 박경순. 2017. 노인정신건강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입법과 정책. 9(2): 275-298.
- 박정현, 서은국. 2005. 사람의 내-외적인 모습에 두는 상대적 비중과 행복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4): 19-31
- 여인숙, 김춘경. 2006. 노년기 자아통합감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22(2): 79-104.
- 이성진, 윤기혁, 이진열. 2017. 노인의 은퇴 이후 우울발생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 21. 8(5): 905-926.
- 장혜경, 오원옥. 2011. 재가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본간호학회지. 18(4): 529-537.
- 주희정. 2004. 노인의 자아통합감 영향요인.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숙. 2017.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참여가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 성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현옥. 2014. 관련변인을 중심으로 비교한 자아통합 척도 연구. 한국노년학. 34(3): 539-553.
- 추경진, 이승연. 2012. 인식된 짐스러움, 절망, 우울 및 자살생각의 관계: 청소년과 노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3): 31-53.

Received: May 18, 2018 / Revised: May 22, 2018 / Accepted: May 28, 2018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과 노년기 자아통합과의 관련성 분석

국문초록 노년기자아통합은 깊은 성찰을 통해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받아들임으로써 획득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통합에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과 노년기 자아통합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참가자 40명, 봉사자 10명, 무료급식 수혜자 10명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학업과 학업 후의 생활에 대한 만족, 결혼생활 만족과 자녀와의 관계, 직장과 가사 일에 대한 만족 그리고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자아통합, 우울, 삶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인들은 대부분의 과거 경험에 대해 만족하며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나, 학업기간에 대해서만 80%의 노인들이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과거 경험 중에서 부모와의 관계와 결혼생활의 만족도 그리고 은퇴 후 삶에서의 만족도가 자아통합과 정적인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통합의 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감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과거 경험, 자아통합, 부모와의 관계, 결혼생활 만족, 은퇴 후 삶

Profiles **Su Hyeon Choi** : She received her Ph 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2. She is a Researcher in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er areas of research encompass geriatric psychology and Social economy(ido-ch@hanmail.net).